



안녕하십니까?

(주)다영푸드(신토불이 체인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조현상 대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을 서울의 건설업종에 3년간 근무하다 회사 사정상 다시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 (주)다영푸드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다영푸드는 육가공, 식품제조, 프랜차이즈 전문회사로서 오리업계의 대표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를 입사해 첫 보직은 프랜차이즈 분야를 담당하는 업무였습니다. 육류 중 유일한 알카리성 건강보양식품인 오리고기를 남



나의 오리체험기 2006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다영푸드 대리 **조 현 상**

너노소 누구나 다양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메뉴를 개발하여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삶”이라는 기본이념 아래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여 현재 전국 각지 6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 뿐만 아니라 현재는 관리부 사육부장(임채봉)님 밑에서 육용오리 사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배우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전공이 수학이라 축산업에는 전혀 생소해 오리사육분야를 책임진다는 것이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처음 농장 실습을 갔을 때, 오리를 보고 처음 느낀 소감은 참으로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눈앞에 수천 여 마리의 오리들을 가까이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어찌보면 귀엽기 그지없고 어찌보면 그 행동

들이 참으로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한번은 사육부에 근무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초생추가 갑작스럽게 3일 동안 2,000수 이상이 폐사 되었습니다. 발병원인이 간염으로 판정되어 입추했던 나머지 초생추 마저 전부 도태시켰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뛰어다니던 병아리를 제 손으로 도태 시키는 마음은 어릴 적 학교 앞에서 산 병아리가 하루만에 죽어서 가슴 아팠던 그때와 같았습니다. 이후로 조금이나마 농장주들의 쓰라린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오리사육분야에는 능력이 미천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해 회사와 농장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입추부터 도압까지의 관리 및 질병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농장주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며, 저 스스로 앞장서서 농장주들과 회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오리사육분야에 함께 종사 한다는 마음 가짐을 가지며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요즘 오리를 비롯한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백초오리, 녹차오리, 유향오리 등 몸에 좋은 약초 등을 섞어 웰빙오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연구해서 사람들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리고기는“모든 육류 중 특이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오리고기를 많이 먹어도 체내에 지방과다 축적에 의해 유발되는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병에 걸릴 염려 없이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스테미너 식품입니다.

오리고기 100g을 먹었을 때 섭취되는 단백질은 쌀밥의 6배에 달하고 비타민은 닭고기의 3.35배나 많으며 무기질 함량도 타 육류에 비해 두배 이상 높습니다. 곡류를 주로 한 우리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우수식품이며, 건강보양음식 중 과연 으뜸이라는

것이 현대 영양학의 결론입니다.”이처럼 몸에 좋은 건강보양식 오리를 직접 사육해서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도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집니다.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느낌 보다는 국민건강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일하고 싶습니다.

요즘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세상이 조금 시끄럽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한명도 인체 감염 사례가 없고, 전문가들도“75℃의 온도로 5분 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죽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모으듯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또한, 오리협회에서는“오리고기를 먹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되면 20억 원을 배상한다.”라는 내용의 보험까지 가입해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어 안심하고 드시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업계에 접어든지 1년을 뒤돌아보면, 앞으로의 오리소비량은 무궁무진할 것이며 이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듯 싶습니다. 요즘 오리업계들도 분주히 노력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더욱더 화합, 단결하여 더욱더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